

# 현대차·기아, ‘글로벌 챌린저’ 선언 창의 아이디어로 미래 모빌리티 개척

## ‘아이디어 페스티벌’ 개최

연구원 창의력, 미래 기술로 이어  
사내 혁신경연서 모빌리티 새길 제시  
6개 팀 아이디어, 실물로 구현 성공  
R&D 현장서 자율 혁신문화 확산

‘연구원들이 창의 역량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현대자동차·기아가 미래 모빌리티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현대차·기아는 22일 남양연구소(경기 화성시 남양읍 소재)에서 임직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물까지 제작해 발표하는 ‘2025 아이디어 페스티벌’ 본선 경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아이디어 페스티벌은 현대차·기아 R&D본부·AVP본부가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전통 있는 행사로, 임직원들의 연구개발 의지를 북돋우고, 창의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해왔다.

2025 아이디어 페스티벌은 현대차·기아가 전세계 무대에서 쌓은 입지를 지속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글로벌 챌린저’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래 모빌리티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현대차·기아는 사전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6개 팀에게 제작비와 실물 제작 공간 등을 지원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팀은 약 7개월 동안 자신의 아이디어



‘액티브 옴니 내비게이션 트랜스포터’ 시연 모습.

를 실물로 구현해 낼 수 있었다.

이날 본선에서는 6개 팀이 각각 발표와 시연을 진행하며 고객의 모빌리티 경험을 한층 확장할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차량 수납 공간 잠금 시스템 ‘디지털 로그 락 시스템(Digi-log Lock System)’ ▲트레일러 견인 성능 향상 시스템 ‘트레일러 토잉 프리 컨디셔닝(Trailer Towing Pre-Conditioning)’ ▲안전 벨트를 활용한 차량 제어 시스템 ‘디벨트(dBelt)’ ▲조향 없이 전 방향 주행이 가능한 모빌리티 ‘액티브 옴니 내비게이션 트랜스포터(Active omni Navigation Transporter)’ ▲발달 장애인의 불안증세 해소를 위한 탈부착 패드 ‘S.B.S(Seat&Belt with Stability)’ ▲차량 번호판 기반 차주 연락 서비스 ‘스냅 플레이트’가 경쟁을 펼쳤다.

이번 아이디어 페스티벌은 작품 구현성과 독창성, 기술 적합성, 고객 지향성

을 평가하고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그 결과 액티브 옴니 내비게이션 트랜스포터를 선보인 ‘ANT 랩’팀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대상 수상팀에게는 상금 1000만원과 2026 CES 견학 기회가 주어졌다.

최우수상은 디지털 로그 락 시스템과 트레일러 토잉 프리 컨디셔닝을 선보인 ‘FMV’팀과 ‘수퍼트레일러토잉’팀에게 각각 돌아갔다. 이들 팀은 각각 상금 500만원과 HMGICS(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 견학 기회를 얻었다.

현대차·기아 연구개발인사실장 백정욱 상무는 “아이디어 페스티벌은 현대차·기아 임직원들이 혁신의 씨앗을 싹틔우는 장”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연구원들이 창의 역량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LG “조명부터 가전까지 한 번에 제어”

생성형 AI 탑재한 ‘씽큐 온’ 공개  
타사 기기까지 연결하는 AI 허브

LG전자가 조명부터 가전까지 집안의 모든 제품을 제어하는 인공지능(AI) 홈 허브 ‘LG 씽큐 온’을 본격 출시한다. 특히 삼성전자나 사오미, 화웨이 등 다른 브랜드의 기기도 통합 연결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추고 있다.

LG전자는 22일 온라인브랜드샵(LG E.COM)을 시작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LG 씽큐 온과 ‘LG IoT 디바이스’를 국내에 순차 판매한다고 밝혔다.

LG 씽큐 온은 고객과의 일상 대화를 통해 맥락을 이해하고, 생활 패턴을 학습·예측한다. 집 안 가전과 IoT 기기를 24시간 연결 상태로 유지하며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LG AI 홈의 핵심 기기다. 또 생성형 AI가 탑재돼 고객과 일상 언어로 대화할 수 있다. 과거의 음성인식 스피커가 질문에 단답형의 단순한 답과 정해진 명령을 이행하는 수준에 그친 것과 대비된다.

LG 씽큐 온의 최대 장점은 폭넓은 연결성이다. 개방형 스마트홈 연동 표준인 매터 인증을 받은 LG 씽큐 온은 와이파이, 쓰레드 등 다양한 연결 방식을 지원해 다양한 국내외 가전 및 IoT 기기를



LG전자가 AI 홈 허브 ‘LG 씽큐 온(ThinQ ON)’을 국내 시장에 본격 출시한다. 고객이 일상 언어로 대화하면 맥락과 공간을 이해해 연동된 가전과 IoT 기기를 제어하고 서비스까지 연결하는 ‘LG 씽큐 온’을 체험하는 모습.

연결할 수 있다. 또 LG 씽큐 앱의 통합 허브 앱스토어 ‘씽큐 플레이’를 활용하면 씽큐 온과 연동되는 ▲캘린더 ▲택시 예약 ▲음악 스트리밍 ▲날씨 등 약 800개의 다양한 앱 서비스와 다양한 제조사의 스마트 IoT 기기도 활용할 수 있다.

LG 씽큐 온의 출하가는 24만 6000원, LG IoT 디바이스는 4만~51만 3000원이다. IoT 기기 연결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도 씽큐 온 구매 시 전문가가 설치를 선택하면 전문 설치 엔지니어가 방문해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춤형 AI 홈을 구성해 준다. 또 집 안의 AI 가전, IoT 기기 등과 씽큐 온의 연결은 물론, 음성/원격 제어 및 가전 업그레이드하는 법까지 알기 쉽게 소개한다. /양성운 기자

## HD현대미포, ‘LCO<sub>2</sub> 운반선’ 수주경쟁력 확대

샌드박스 특례로 효율성 제고

HD현대미포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액화이산화탄소(LCO<sub>2</sub>) 운반선 수주경쟁력 확대에 나선다.

HD현대미포는 최근 규제 샌드박스 신청한 ‘탱크로리를 활용한 선박으로의 액화이산화탄소 충전’ 안전이 산업통상부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다음 달 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고압가스 충전·저장 설비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번 실험특례를 통해 탱크로리를 활용한 화물창 충전이 예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시운전 시 별도 부지에 충전 터미널을 설치하고, 선박을 해당 터

미널로 이동시켜야 하는 소요가 사라져 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운용 효율 향상에 따른 납기 신뢰성 증대가 기대된다.

실제로 HD현대미포는 현재 건조 중인 2만 2000㎥급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 4척의 시운전 시 조선소 안벽에서 유연호스와 자체 제작한 이동식 매니폴드(선박 한 척과 탱크로리 여러 대를 연결해 동시에 충전하는 장치)를 활용, 선박 내 화물창에 액화이산화탄소를 충전할 계획이다.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의 시장 전망도 밝은 편이다. 노르웨이선급(DNV)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연간 포집되는 이산화탄소량은 오는 2030년 2억 1천만 톤에서 2050년 13억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 현대로템

## 철도 사이버보안 국제인증 첫 획득

현대로템이 철도분야 글로벌 인증을 잇따라 획득하며 사업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현대로템은 산업용 사이버보안 국제표준인 IEC 62443 인증을 국내 철도업계 최초로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제정한 산업제어시스템 보안 국제표준인 IEC 62443은 산업 현장의 사이버 범죄와 IT 시스템 해킹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이버 보안 수준을 평가하는 국제 표준이다.

IEC 62443은 글로벌 철도차량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보안 기준으로 인증 여부가 사업 수주의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이다. 현대로템은 철도차량의 핵심 시스템인 열차제어모니터링시스템과 통합방송시스템, 추진장치, 보조전원장치 등에 해당 인증을 우선 적용했으며 향후 철도 인프라 보안 전반에 적용한다.

이번 인증을 통해 현대로템은 철도차량의 제어 및 운영 시스템이 국제 수준의 사이버보안 요건을 충족했음을 공식 인정받았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정유사, 실적 회복 기대감 커져 정제마진 급등에 단기 호조세

유가 변수에 지속성은 불투명  
공급 축소로 수익성 개선 기대

국내 정유사들이 정제마진 급등에 힘입어 하반기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흐름과 공급 축소 상황에 따라 상승 국면이 얼마나 지속될지가 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싱가포르 복합 정제마진은 배럴당 13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상반기 3~6달러 수준과 비교할 때 두 배 이상 급등한 수치로, 일반적으로 정제마진이 배럴당 4~5달러만 넘어도 손익분기점을 웃도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제마진은 석유제품 판매가격에서 원유 구매비 등을 제외한 값으로, 정유사의 수익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다.

정제마진이 가파르게 반등하자 국내 정유사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에프엔가이드는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이 3분기에 각각 2018억원, 252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1.2분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상장사인 GS칼텍스와 HD현대

오일뱅크 역시 정유 부문에서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이클의 핵심 변수는 국제유가 흐름과 글로벌 공급 축소다. 유럽과 미국에서 노후 정유 설비 폐쇄가 확대되는 가운데 러시아 정유시설이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차질을 빚으며 공급 타이트 현상이 강화됐다. 여기에 미국과 유럽의 러시아산 원유 제재가 강화되면서 원유 시장 내 지역별 수급 왜곡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중국·인도·터키 등 러시아산 원유 대체 조달국에 대한 2차 제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중동산 원유 수요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동산 원유 수요가 확대되면 오펙플러스(OPEC+)가 감산을 조기에 완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감산이 완화돼 원유 공급이 늘어나면 공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압력으로 인해 아시아 공식판매가격(OSP)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제마진의 흐름은 변동성이 큰 만큼 언제까지 상승세가 이어질지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단기 실적 개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 삼성중공업, XR 기술로 스마트조선소 가속

삼성전자와 기술개발 협력 MOU

삼성중공업이 확장현실(XR)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22일 삼성전자와 ‘XR 기술개발 협력 MOU’를 체결하고, 같은 날 열린 삼성전자 ‘갤럭시 XR’ 쇼케이스 행사에서 XR 기술이 선박 검사 과정에 적용되는 모습을 처음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갤럭시 XR’을 착용한 작업자가 패스스루(pass-through) 및 핸드 트래킹(hand tracking) 기술을 이용해 3차원으로 구현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엔진을 가상 공

간에서 검사하는 장면이 담겼다. 패스스루는 현실 장면을 그대로 시야에 투영해 가상과 실재를 동시에 볼 수 있게 하는 기술이며, 핸드 트래킹은 손동작만으로 XR 환경을 제어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이번 협력은 삼성중공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해 온 가상현실(VR) 솔루션을 ‘갤럭시 XR’에 접목해 사전 검증한 것이 계기가 됐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전자는 XR 사업 협력을 통해 ▲신제품 설계 및 개발 ▲공동 브랜딩을 통한 홍보 ▲차세대 사업분야 발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유혜은 기자